

# 전주시 치매안심센터, 무료 조기검진

### 전주시보건소, 내달부터 만 60세 이상 시민대상 진단과 함께 상담 등 다양하고 통합적 관리 제공

만60세 이상 전주시민들은 오는 7월부터는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무료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그간 지역 병원과 협약을 맺어 실시해온 만60세 이상 시민 대상 치매 무료 조기검진사업을 오는 7월부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

다. 이를 위해, 센터는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을 협력의사로 위촉했다.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무료 조기검진을 전담하게 되면 시민들은 진단과 함께 상담 등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하고 통합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치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1차 선별검사의 경우, 인지기능 감퇴가 노화에 의한 것인지 치매로 인한 것인지 감별하는 일차적 검사이며, 진단검사는 개별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인지기능 검사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1차 선별검사서에서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 병원 기준으로 1차 선별검사(1~2만원)와 2차 진단검사(3~4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장병호 시 보건소장은 "치매는 예

방이 가장 좋은 치료이며, 그 중 가장 좋은 예방은 검진이다. 최근 기억이 감퇴되거나 언어 사용의 어려움, 시간과 장소의 혼동 등을 경험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무료 조기검진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무료 조기검진 사업에 전주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65세 미만 초로기 치매 환자를 포함해 총 8,462명의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 군산 유흥주점 화재 사망자 4명으로 늘어

지난 17일 발생한 군산 유흥주점 화재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0분께 군산 장미동 유흥주점 화재 때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은 김모(58·여)씨가 숨을 거뒀다.

이에 군산 유흥주점 화재 피해자 33명 중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29명이 됐다.

김씨는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기도과 폐 손상을 입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문화재는 우리가 지킨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온고을한문화재한지킴이와 함께 문화재지킴이 운동의 일환으로 조경단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옥마을에 김치를 더하다

### 전주김치문화관 '아삭아삭 전주김치여행' 성료

사단법인 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은 '시원한 맛을 찾아 떠나는 아삭아삭 전주김치 여행' 행사를 23일 전주한옥마을 전주김치문화관에서 열었다.

22일 사업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김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전주김치 소개, 김치담는 과정 및 레시피 설명, 김치체험(백김치+알타리김치), 시식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체험에 참여하여 직접 담근 김치는 각 가정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전주김치문화관을 통해 진행된 참가 접수는 미식도시 전주의 브랜드 이미지와 HACCP인증 국내산 재료들로 담은 김치, 전주한옥마을에서 진행되는 체험형 관광상품이라는 특별

함에 높은 관심으로 조기 마감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접수 한 관광객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직접 좋은 재료로 김치를 담고 싶어서 재료선별법이나 과정에 익숙치 않아 미뤄왔는데 전주김치문화관에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며, "가족들과 함께 체험에 참여하고 한옥마을 관광도 할 수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4회째 개최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전주김치여행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11월에 계획된 김장김치 여행은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며 "전주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으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가 글로벌 음식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여성 지도자 리더십 역량 'UP'

### 여성단체 임원 등 거제에서 역량 강화 워크숍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21일과 22일 이틀간 거제대평리조트에서 소속 임원 등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여성 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 지도자의 잠재적 소중한 가치 발견을 통해 조직 내 핵심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분야별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하며 여성리더로서 지역사회와 융합되어야 할 동기 부여를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첫날 엄현숙 강사의 '자원봉사로서의 자세와 마인드 대한 교육'에 이어, 최선영 한국비지니스 전담강사를 초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여성리더의 역량' 특강을 진행했다. 또, 강연 후에는 여

성단체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수평적 문화를 위한 양성평등 마인드, '사례를 통한 양성평등이 낳은 부정적 결과, 양성평등의 개념과 중요한 이유 찾기' 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거제지역 문화탐방도 실시했다.

김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번 워크숍이 여성의 성장 잠재력 개발 및 화합과 소통의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큰 몫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전주시 발전을 위해 봉사를 바탕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성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2018 스마트쉼, 자원봉사 가족 힐링캠프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가족·이웃 관계 개선 5개기관과 협력 스마트폰 없는 힐링타임 가져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2일부터 1박 2일간 자원봉사 가족을 대상으로 '2018 스마트 쉼, 자원봉사 가족 힐링캠프'를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잔디광장에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서는 전주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13가정 50여명이 참여, ▲전북스마트쉼센터(박진희 소장), ▲동화나래연구소(문성숙 대표), ▲행복한밥상푸드봉사단(안영순 회장), ▲전북이벤트MC협회(정대수 회장), ▲전북과학교실(박은실 대표),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 백제지역대(기진너대장) 등 6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17년도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가족 힐링캠프에선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인해 소원해진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원봉사활동 체

험과 가족구성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특히 이날 참여한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모두가 재능나눔으로 함께 했다는데 더욱 의미를 주었다.

이밖에 주요 프로그램으로 가족 요리대회, 생존팔찌 만들기, 도전! 스마트 골든벨,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전라놀이 등 스마트폰 없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식당을 가도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대화하는 시간도 너무 적어서 고민이었는데 덕분에 스마트폰 없이 가족과 소통의 시간을 갖을 수 있어서 좋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에 비치된 쓰레기통을 국가대표 관광지답게 정비하기로 했다.

## 전주한옥마을 쓰레기통 정비한다

### 전주시, 12개의 노후화된 쓰레기통 전면 교체 2개 시범설치 후 의견 수렴해 최종디자인 확정

전주시가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에 비치된 쓰레기통을 국가대표 관광지답게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설치된 노후화된 쓰레기통을 철거하고,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 쓰레기통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부터는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 이에 대비해 긴급하게 예산을 배정, 한옥마을 내 쓰레기통 12개를 모두 바꿀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이와 관련, 이번에 시범 설치되는 쓰레기통은 쓰레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림막과 보관함이 설치되고, 꼬치 전용통도 부착된다. 또, 병·캔, 음식·음료를 별도 배출할 수 있게 제작되는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노후화된 쓰레기통 교체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가로환경을 관광객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3주간 진행되는 쓰레기통 시범설치에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